

KIA 천군만마...가을야구 힘 받는다

윤석민 엔트리 등록·지크 훈련 시작...김진우 오늘 합류·안치홍 3일 제대

‘호랑이 군단’이 9월 총력전을 위한 진영을 갖춘다.

막판 순위 싸움을 앞둔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 먼저 힘이 실린다.

SK와의 홈경기가 열린 30일 투수진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지난 4월27일 어깨 통증으로 재활군으로 내려갔던 윤석민이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챔피언스필드로 돌아왔다. 지난 15일 팔꿈치 통증으로 빠졌던 지크도 선수단에 합류, 훈련을 시작했다.

윤석민은 최근 이를 간격으로 퓨처스 등판을 소화하면서 1군 복귀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했다. 24일 kt전에서 1이닝을 소화했던 윤석민은 하루 쉬고 26일 다시 마운드에 오르면서 복귀 체비를 끝냈다. 고질적인 어깨부상을 감안해 윤석민은 볼펜에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크도 앞선 28일 자체 홈백전을 통해서 복귀 합격 사인을 받았다. 이날 지크는 2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도 153km를 찍으면서 ‘이상

무’를 알렸다. 신중하게 복귀 시점을 계산했던 김기태 감독은 30일 지크를 챔피언스 필드로 불러들였다.

지크가 돌아오면서 KIA는 선발 고민을 하게 됐다. 이번에는 행복한 고민이다. 양현중-헥터가 견재한 가운데 고효준이 선발진 새로운 축으로 등장을 했고, 페이스가 떨어진 홍건희의 빈 자리에서는 김운동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발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여기에 또 다른 선발 자원인 김진우도 전력에 가세한다.

팔꿈치 수술 이후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던 지난 6월30일, 발가락 골절로 재활군 신세가 됐던 김진우가 30일 LG와의 퓨처스 경기를 끝으로 실전 점검을 마치고 31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한다. 퓨처스 등판에서 147km를 기록하는 등 스피드는 여전히

9월1일 확대엔트리 적용 시점에 맞춰 기대했던 자원들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 KIA 마운드에 힘이 실리게 됐다.

타석에서는 ‘에비역’ 안치홍이 새로운

변수다. 오는 9월3일 제대를 앞두고 있는 안치홍은 경찰야구단에서의 마지막 경기였던 30일 상무전에서 멀티히트 속 1타점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복귀에 맞춰 몸상태는 잘 준비됐다. 김기태 감독도 안치홍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우익수 자리에 서동욱과 김주형을 투입하면서 다양한 전력 운영에 대한 구상을 해두었다.

엔트리 확장에 앞서 무력시위를 하며 폴업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 지난 25일 kt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처음 홈런포를 쏘아올렸던 내야수 박찬호는 30일 LG전에서는 만루포에 이어 연타석 홈런으로 나홀로 5타점을 싹쓸이하면서 8-0 승리를 이끌었다. 선발 대안 속 임시 선발 후보로 잠시 1군 선수단에 합류했던 투수 박상욱도 이날 김진우에 이어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전력을 강화한 KIA가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불 같은 강속구 없어도 경험으로 승부”

125일만의 1군 등록 윤석민

KIA 윤석민의 야구 인생 2막이 열린다. 어깨 부상으로 오랜 시간이 마운드를 떠나있던 윤석민이 30일 다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민은 4월17일 넥센전 완투패 이후 어깨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4월26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급했던 마음에 실전과 재활을 반복하느라 오히려 1군에 오는 걸음이 더뎠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갈 길은 멀다. 고질적인 어깨 통증은 어쩔 수 없이 윤석민의 남은 야구 인생에 알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민은 “완투 경기를 생각하면 아쉽다. 1회를 던지고 어깨가 좋지 않았다. 5회

어깨 상태 100% 아니지만

팀에 보탬 돼 미안함 썼겠다

에도 교체해주신다고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던지고 마운드에 서면 괜찮았다. 경기 상황이 타이트해서 끝까지 던지게 됐는데 돌아보면 후회된다”며 “마음이 급했다. 급하게 복귀 준비를 하다가 (아파서) 늦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어깨 통증은) 안고 가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전의 불 같은 강속구를 장담할 수 없지만 경험과 정밀함으로 팀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다.

윤석민은 “100%는 아니지만 시합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는 준비됐다. 2군에서

는 집중력과 긴장감이 떨어지는 만큼 스피드는 1군에서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스피드가 전부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FA(자유계약) 대어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윤석민은 남은 시즌 팀에 역할을 하면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씻고 싶다.

“(일단) 패전처리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웃음을 보인 윤석민은 “1군 경기를 많이 보기도 했고 응원을 하게 됐다. 조금만 더 잘해서 순위 유지하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



리우 김 기보배·최미선 시구·시타 30일 오후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를 앞두고 환영 행사에 참석한 리우올림픽 출전 양궁 기보배·최미선 선수가 시구와 시타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월 국내 톱랭커 총출동...세계최고 양궁대회 연다

20~22일 올림픽공원...리우 김 주인공 등 160여명 참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전 종목을 석권한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 수준에 걸맞은 대회를 연다.

대한양궁협회는 10월 20~22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한국양궁대회 2016(가칭)’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리우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한 장혜진(LH)-기보배(광주시청)-최미선(광주여대), 구본찬(현대제철)-김우진(청주시청)-이승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모두 참가한다. 이들을 비롯한 국내 남녀 상위 랭커 80

명씩 총 160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국내에 세계 최고 실력의 선수들이 많은 만큼, 최고 수준에 걸맞은 최고의 대회를 준비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양궁 활성화와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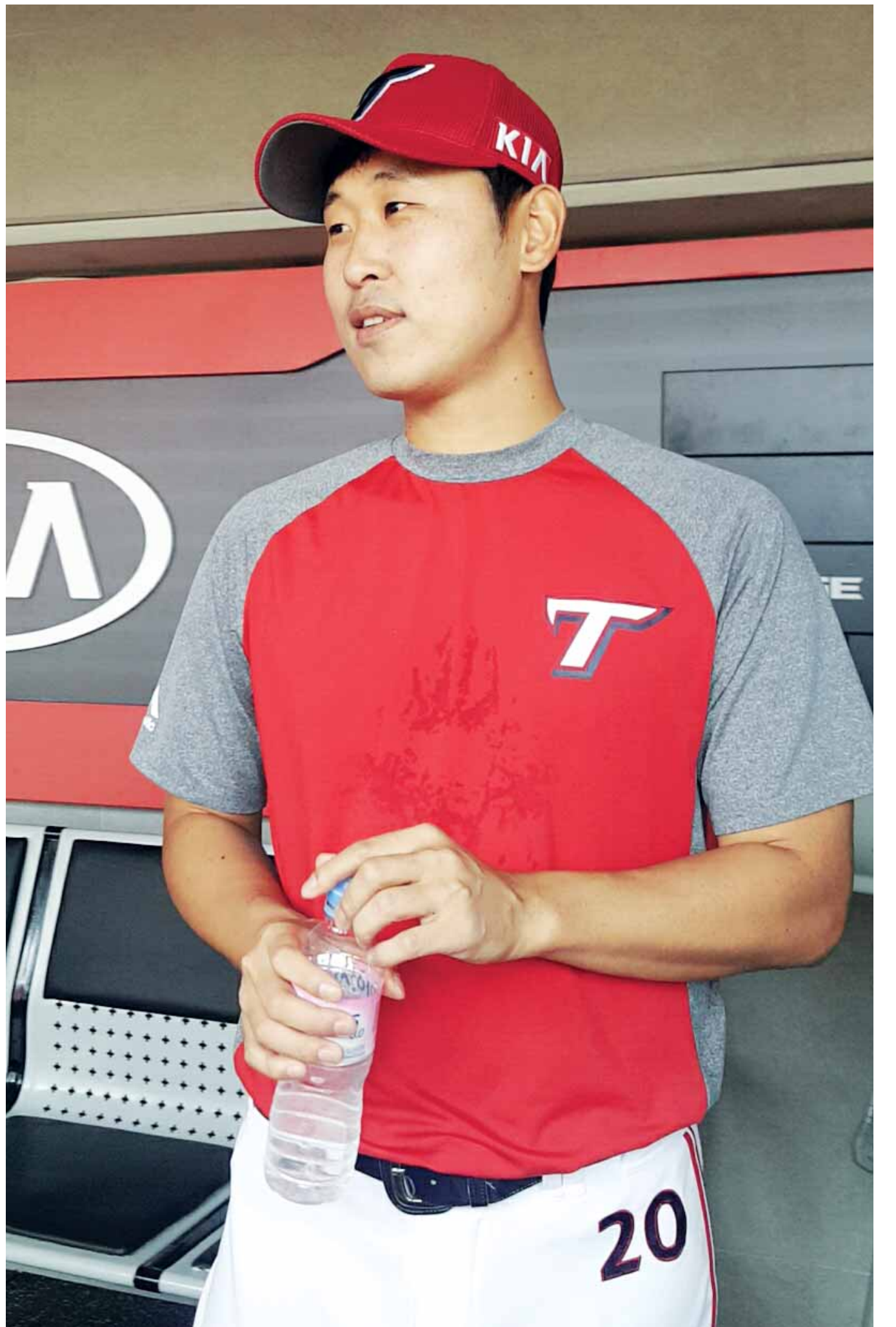
또 “최중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금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회는 10월 20일 공식 연습 후 21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예선과 본선을 치르고, 22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결선을 치른다. 주최 측은 다음 달 중순 대회 공식 명칭과 엠블럼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예정이다. 앞서 한국은 리우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양궁 종목에 걸려있던 금메달 4개를 모두 휩쓰는 데 성공했다.

남자단체전에서는 한국 선수단에 리우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겼고, 여자 단체전에서는 올림픽 단체전 8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장혜진은 4년 전 런던 대회 직전 대표팀에서 탈락한 아픔을 딛고 2관왕에 오르며 신궁 계보에 이름을 올렸고, 구본찬도 한국 남자양궁 최초로 올림픽 2관왕 꿈을 이뤘다. /연합뉴스



SK와의 홈경기가 열린 30일 엔트리에 등록된 KIA 윤석민이 훈련이 끝난 뒤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청소년 야구, 필리핀에 콜드승 7회 14-0...이정후 4안타

한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감독 이성열)이 필리핀을 누르고 상쾌하게 출발했다. 대표팀은 30일 대만 타이중 야구장에서 열린 제21회 18세 이하 아시아청소년야구 선수권 대회 B조 예선 1차전에서 필리핀에 14-0, 7회 콜드승을 거뒀다.

NC 다이노스가 1차 지명된 좌완 투수 김태현은 선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승리 투수가 됐다. 김태현의 뒤를 이어 우완 김민(유신고)이 2이닝 무실점, 좌완 허준영(성남고)이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중범 해설위원의 아들인 이정후는 1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4안타 2타점 3득점으로 활약했다.

대표팀은 1회말 2사 2·3루에서 김민수의 우중간 2타점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후 김태현의 좌전 적시타까지 더해 3-0으로 앞섰다. 2회말에도 김성윤이 1사 2·3루에서 2루수 강습 안타로 1점을 추가했고, 계속된 1사 1·2루에서 김형준이 1타점 우전 적시타를 쳤다.

기선을 잡은 대표팀은 3회말 4점, 4회말 3점, 6회말 2점을 보태 총 14점을 뽑았다. 2차전은 31일 중국과 치른다. /연합뉴스

오승환 14세이브·김현수 안타 재개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사진)이 1이닝을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고 시즌 14세이브를 수확했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오승환은 30일(이하 한국시간) 밀워키 브루어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6-5로 앞선 9회말에 마운드에 올랐다.

오승환은 선두타자 스쿠터 제넷과 대결해 볼카운트 0볼-2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시속 140km(87마일) 슬라이더를 던져 1루수 망볼로 돌려세웠다.

오승환은 두 번째 타자로 나선 밀워키의 주포 라이언 브라운을 공 5개 만에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이어 헤르난 페레스를 141km(87.7마일) 슬라이더로 역시 헛스윙 삼진

으로 요리했다. 오승환의 이날 최고 구속은 시속 152km(94.7마일)을 기록했다. 던진 공은 12개에 불과하다.

평균자책점은 1.75에서 1.72로 낮아졌다. 아울러 오승환은 지난 4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시작된 무실점 행진을 11경기로 늘렸다.

김현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첫 타석부터 안타가 나왔다. 김현수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마르코 에스트라다의 시속 139km 커터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안타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볼티모어는 1-5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